

이용섭·김영록 “광주·전남 상생의 길 가겠다”

5·18묘지 참배 첫 일정
‘상생’ 한 목소리
이 “광주혁신위 출범”
김 “취임준비단 구성”



14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회 당선자들이 오월 영령들을 합동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민선 7기 광주·전남을 새롭게 이끌어 갈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와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자가 지역 상생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자와 당직자 등 100여명은 14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큰절을 올렸다.

참배 후 이용섭·김영록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도민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주·전남의 경제를 살리라는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광주·전남 시·도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나후된 광주·전남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지상명령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전남이 매 상황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면 공멸일 뿐”이라며 “광주와 전남은 공동의 뿌리이고, 하나의 뿌리이고 공동 운명체인 만큼 단일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도 “5·18 민주화정신을 받아들여 민주·정의·평화의 정신으로 광주·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이날 민선 7기 시정 바로미터인 광주혁신위 출범을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위원장에 김윤수 전남대 총장을 임명했다.

혁신위 산하에는 시민주권위·일자리경제위·문화관광체육위·복지여성위·환경교통안전위·도시재생위·민주인권평화위 등 7개 분과위원으로 광주 현안이 대부분을 포함돼 있어 취임 초부터 강력한 시정혁신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김 당선자는 별도의 도정 인수위원회

를 꾸리지 않기로 했다. 도정 인수위를 대신해 소규모 취임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취임을 준비할 계획이다. 취임 준비기획단은 취임 전까지 도정 목표와 방침설정, 공약 구체화, 취임식 준비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정근산·조기철 기자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63% ‘물갈이’

‘연임제한·경선탈락’ 27명 중 17명 새 얼굴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 27명 가운데 17명(63%)이 새 얼굴로 바뀌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민선 6기 광주 기초단체장 5명 중 2명, 전남 22명 중 12명이 재선에 도전했다.

총 14명이 연임에 도전했지만 10명이 당선하고 4명이 낙선했다.

광주에서는 김성환(동구)·임우진(서구) 후보가 재선에 나섰지만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낙선했다.

3선 제한규정 탓에 출마하지 못한 송광운 북구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시장 선거에 도전하려고 사퇴한 최영호 전남구청장과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포함하면 광주에서는 모든 기초단체장이 바뀌었다.

전남에서는 박홍률(목포), 강인규(나주), 정현복(광양), 최형식(담양), 유근기(곡성), 구충곤(화순), 전동평(영암), 김준성(영광), 유두석(장성), 신우철(완도), 이동진(진도), 고길호(신안) 후보가 연임에 도전했다.

이 가운데 박홍률·고길호 후보가 고배를 마셨다. 선거 전 이미 전체 27명 중 13명

(48.1%) 물갈이가 확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이번에 낙선했던 단체장 4명을 포함하면 총 17명이 새 얼굴로 바뀐 것이다.

구례·고흥 군수는 3선을 마쳤으며, 여수·순천 시장과 장흥·강진 군수는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무안·해남·보성은 군수 비리로 이미 단체장 공석상태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이른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근산 기자

민주당, 광주·전남 광역의원도 ‘석권’

시의원 23명 중 22명·도의원 58명 중 54명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집어삼켰다.

민주당은 한동안 지속했던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의 동거를 청산하고 일당 독주시대를 다시 열었다.

1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광주시의회 23석 가운데 22석을 쟁겼다. 동구 2곳, 서구 4곳, 남구 3곳, 북구 6곳, 광산구 5곳 등 지역구 20곳 의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비례대표 의석 3석 중 2석도 민주당 몫으로 갔으며, 정당 지지율이 10%를 넘는 정의당만이 남은 1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전남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58석 가운데 54석을 휩쓸었다.

나머지 4석은 평화당과 정의당이 2석씩 나눠 가져갔다.

지역구 52곳 중 진도(평화당 김희동 당선인)와 영암 제2선거구(정의당 이보라미 당선인)를 뺀 50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비례대표 6석은 민주당(4석), 평화당(1석), 정의당(1석)에 돌아갔다.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의 영향으로 지방의원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광주·전남 광역의회 다당제 구조도 이번 선거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옛 국민의당에서 당적을 갈아탄 평화당 현역의원들은 일제히 고배를 마셨다.

민중당도 비례대표 당선을 기대했으나 실패했으며, 그나마 정의당만 광주 1석, 전남 2석을 지켰다. /정근산 기자

광주·전남 당선인 명단 ▶ 2·3면 /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당선 소감 ▶ 4·10·11면

전남매일 29주년 창간기념

광주교육은 민주주의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유와 책임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